

익산 브랜드 공연 '웨스트 & 이스트'

익산시립예술단, 3개 예술단 협업 22~23일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공연

익산시 브랜드 공연인 '웨스트 앤 이스트(West & East)-서쪽남자 & 동쪽여자'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회 공연을 선보인다.

익산시립예술단은 11월 22일 오후 7시 30분과 23일 오후 3시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각각 70분씩 2회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웨스트 앤 이스트'는 백제왕도 익산시의 '서동설화'를 기반으로 신화적 판타지를 추가한 공연이다. 익산시립예술단 소속 시립합창단과 시립무용단, 시립풍물단 등 3개 예술단이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

익산시립무용단 김익주 감독이 총예술감독으로 지휘하고 익산시립합창단 노기환 지휘자가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익산시립무용단 최석열 감독이 대본을 쓰고 총연출을 진행해 공연을 완성했다.

익산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 만큼 익산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작품 제작에 매진했으며, '서동'이라는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토대로 대중성 확보에도 힘썼다.

익산시립예술단 전원이 출연하는 작품은 무용극을 기본으로 하는 오페라 연희 댄스컬로 구성되며, 백제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무대로 익산 브랜드 공연에 걸맞은 작품이라는 평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공연을 개최해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 개최된 상반기 공연에는 객석이 가득 차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브랜드 공연의 대중화와 활성화에 기여했다.



익산시 브랜드 공연인 '웨스트 앤 이스트(West & East)-서쪽남자 & 동쪽여자'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회 공연을 선보인다.

이러한 공연은 전석 무료로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1인 4매까지 예약할 수 있다. 취학아동 이상 입장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859-3306)로 문의하면 된다.

이러한 공연은 전석 무료로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1인 4매까지 예약할 수 있다. 취학아동 이상 입장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859-3306)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 합굿마을 9일 '전주사계' 합동 공연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9일 오후 3시 전당 공연장에서 합굿마을문화유산 자협동조합(대표 김여명)과 '전주사계' 합동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우리 국악의 매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기획했다.

공연은 전주 사계절의 다채로운 모습을 △국악 창작곡 △전통 연희 △판소리를 통해 융합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전통적 모습을 현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해 연출했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합굿마을(063-236-1577)에 문의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전주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다채로운 국악 선율로 표현한 이번 공연이 시민들에게 가을날 마음의 평온과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공모

단편 1월 17일 · 장편 1월 31일 11시까지 온라인 접수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7일부터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경쟁 부문 한국경쟁/한국단편경쟁과 비경쟁부문 코리안시네마(장편) 그리고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모다.

공모 마감일은 출품 부문에 따라 다르다. 단편은 2025년 1월 17일까지, 장편은 1월 31일 11시까지다. 상영시간(러닝타임) 기준으로 40분 미만의 단편, 40분 이상은 장편으로 구분하고 있다.

6일 전주국제영화제에 따르면 출품 공모는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 모두 장르 구분 없이 출품 가능하다. 다만, 2024년 1월 이후에 제작이 완료된 영화이어야 하며,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일 이전에 국내에서 상영된 적이 없는 코리아 프리미어 혹은 그 이상의 프리미어 조건을 갖춘 작품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경쟁 부문은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 연출작만 출품 가능하며, 한국단편경쟁/비경쟁부문(장편)/지역공모는 연출 작품 수의 제한이 없다. 지역공모는 전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감독, 제작자의 작품과 전북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교의 재학생 또는 전북 지역 50% 이상 로케이션이 진행된 작품이 해당된다.

출품은 전주국제영화제 출품 사이트(https://entry.jonifest.kr/)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이후 내부 심의와 예심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영화진흥위원회(02) 2285-0562로 하면 된다.

한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어린이·가족 문화축제 남원서 열린다

9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서 '찾아가는 하우펀 미니' 개최

남원시는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일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과 '어린이·가족 문화축제 How Fun(하우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우펀은 매년 어린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복합문화축제로, 전시, 체험, 공연,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기는 행사이며, 이번에는 김병종미술관과 '찾아가는 하우펀 미니'라는 이름으로 남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클래식 음악과 현대 서커스의 유쾌한 조화를 볼 수 있는 서커스 공연 2편과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집인 '입체 유르트 만들기', 가족·친구들과 함께 나만의 인생샷을 찍는 '칼라 하우펀' 등 10여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SNS를 참조하거나, 전화(063-620-5716)로 문의하면 된다.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명인명장 공예육성' 8일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8일 전주공예품전시관 마중스퀘어(구 마중관)에서 지역 공예 명인 명장들의 작품을 실시간 경매로 민나는 '명인명장 공예육성'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6일 전당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공예인과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제작한 총 14종의 공예품이 판매되며,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현장 경매와 온라인 경매로 진행된다. 온라인 경매는 전주공예품전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경매에 오르는 작품은 △웃칠장 박강용의 색칠수저세트 △나전장 최대규의 나전수저세트

특히 경매는 사회자가 입찰가를 제시하면 응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최대 1명의 응찰자가 나올 때까지 진행된다. 현장 참여자는 현장에 준비된 소품을 활용해 온라인 참여자는 실시간 채팅으로 응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예육성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11~12월 '토요국악나들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1월과 12월, 예원당에서 '토요국악나들이' 공연에서 다양한 전통춤, 가악, 창극으로 구성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11월 9일은 한영숙류 살풀이춤과 산조합주와 신갈대신무 등 깊이 있는 전통 춤사위와 연주로 구성, 절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살풀이춤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산조합주는 국악기의 조화로운 음색으로 국악의 깊이를 전한다.

11월 16일에는 산조합주와 창극 춘화가 중사랑가를 포함해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어우러진 무대에서, 교방국거리춤과 입체창은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이고, 삼도농악가락은 힘찬



리듬으로 흥을 더한다.

12월 7일, 올해의 마지막 <토요국악나들이> 공연에서는 구음 시나위와 창극 작별을 주요 프로그램

으로 구성해 국악의 웅장함과 섬세함을 선사, 진육재배기와 흥타령 등 다양한 국악 무대가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